

내년 구직급여 상한액 10% 오른다

한달 최대 204만6000원까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

내년부터 실직자 구직급여 상한액이 6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2019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올해 6만원보다 6000원 인상한 6만6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상한액 인상으로 2019년도에는 한달 최대 204만6000원(31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기준 월 최대액인 186만원 보다 18만6000원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또 내년 1월 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 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한다. 상·하한액도 각각 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높인다. 또한 일명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도 현행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한다. 아빠휴직보너스제는 부부가 순차적

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 관계자는 "육아휴직자의 소득 대체 수준을 높여 저소득·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이 활성화 되고, 일·가정 양립과 부모 공동육아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근로자도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가능해진다

내년부터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사업주 뿐 아니라 근로자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사업주만 신청할 수 있는 고용보험료 지원을 내년부터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

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또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노동시간 단축 법 시행시기 이전에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한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법령에서 정하는 산제방호유체의 예방 활동으로 인정하고 이에 한해 산제 보험료를 추가로 10% 할인해,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지역주민의 따뜻한 사랑방 역할 '톡톡'

군산옥산우체국, 명품우체국 인증 현판식·표창패 수여
고객감동·직원행복·아침에 출근하고 싶은 전북우체국 구현에 앞장

전북지방우정청은 지난 24일 군산옥산우체국에서 김성철 청장, 이홍복 한국가스공사 전북지역본부장, 김필주 군산우체국장, 서순만 옥산면장 등이 참여한 자리에서 올해 두 번째 전북 '명품우체국' 인증 현판식, 명품우체국장(군산옥산국장 박옥선) 표창패를 전수했다고 밝혔다.

명품우체국은 김성철 청장의 우체국 혁신경영 프로그램 일환으로 15개 총괄우체국장이 추천한 우체국 대상, 전북지방우정청에서 고객만족 설문조사, 현지실사, 공적심위원회의 등 엄격한 심의를 거쳐 명품 1국(군산옥산) 으뜸 2국(정읍신대인, 순창생치), 비급 2국(부안출포, 완주유진) 등 5국을 최종 선정했다.

특히, 전북 명품우체국의 영예를 받은 군산옥산우체국은 '고객감사의 날, 다과의 날'을 지정, 지역주민 소통의 장을 마련, 고객감동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문헌실 주무관은 2010년 우체국 방문한 70대 노인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여 군산경찰서 감사장을 받았고 올해는 이항숙 주무관과 함께 고객추천 친절직원으로 선정됐다.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미녀 삼총



전북지방우정청은 지난 24일 군산옥산우체국에서 올해 두 번째 전북 '명품우체국' 인증 현판식, 명품우체국장(박옥선) 표창패를 전수했다.

사'라는 애칭으로 가족친화적 직장 문화를 조성, 장애인시설 봉사활동, 지역농산물 판로 개척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우체국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서순만 옥산면장은 "군산옥산우체국은 지역주민의 따뜻한 사랑방 역

할을 톡톡히 해내며 다시찾고 싶은 우체국으로 칭찬이 자자하다"며, "명품 생태관광지 청암산, 명품 옥산우체국이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우체국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철 전북지방우정청장은 "지역

사회와 소통, 상생하는 우체국으로 위상을 높여가고 있는 옥산우체국장 및 직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드린다"며, "우체국은 한마음으로 고객감동, 직원행복, 아침에 출근하고 싶은 전북우체국 구현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NH콕뱅크, 기해년 황금돼지 선물 이벤트 실시

총 105명에게 푸짐한 경품제공

농협상호금융(대표이사 소성모)은 다가오는 2019 기해년 새해 기념, 대고객 감사 이벤트를 내년 1월 26일까지 실시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벤트는 NH콕뱅크의 비대면 금융상품가입, 콕푸드 1만원 이상 구매고객, 콕팝 조합원 회원 가입고객 등 이중 한개 조건만 충족해도 추첨을 통해 매주 1명 황금돼지 10돈, 20명은 콕푸드 이용권 5만원을 선물로 제공하는 등 5주 동안 총 105명에게 푸짐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새롭게 업데이트한 NH콕뱅크는 사용자 편의성 극대화, 간편 비밀번호 또는 지문인증 로그인으로 송금, 비대면 금융상품가입, 농산물 직거래, 농촌생활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간편뱅킹 서비스이다. 소성모 농협상호금융대표는 "이번 경품 행사를 통해 앞으로 더욱 많은 고객이 NH콕뱅크의 간편한 서비스를 많이 경험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2019 기해년 새해에 많은 행운이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원주 소양농협이 지난 21일 동지를 맞아 소양농협 내에서 '2019년 새해맞이 동지 팔죽 나눔 행사'를 펼쳤다.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전자문서 대상 과기부 장관상 수상 쾌거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자사의 금융앱 'NH스마트고지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이 주최한 '2018 전자문서 대상'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전자문서 대상은 전자문서 관련제

도, 기술개발 등에 기여한 단체, 유공자에 수여하는 정부 포상이다. 특히, 2017년 3월 출시한 NH스마트고지서는 핀테크 확대에 따라 종이 고지서가 아닌 모바일 앱으로 통신비, 카드청구서, 보험안내장, 아파트 관리비, 지방세, 국세, 법칙금 등을 고지 받고, 간편 결제를 통해 즉시납부

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NH스마트고지서'를 이용하는 기관과 기업들은 단기간에 집중되는 고지서 인쇄, 발송 등의 업무 과정에서 벗어나고, paperless를 통해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도 실천, 고지서 실시간 수령 확인에 따라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농협은행은 2013년 10월은

행권 최초로 '영업점 전자창구'를 도입해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전환, 매년 수십억원에 이르는 종이비용도 대폭 절감했다. 김장근 본부장은 "NH농협은행은 더욱 다양하고 간편한 서비스를 발굴, 고객의 편의성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소양농협, 새해맞이 동지팔죽 나눔행사 펼쳐

원주 소양농협은 지난 21일 동지를 맞아 소양농협 내에서 '2019년 새해맞이 동지 팔죽 나눔 행사'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새해맞이 동지 팔죽 나눔 행사'는 소양농협 임직원, 소양농협 농가주부모임, 고향주부모임, 부녀회 회원들의 자원봉사로 매년 진행하며 소양관내 지역민들에게 잊혀지는 동지의 참된

의미를 알리고자 하는 행사다. 유해광 소양농협조합장은 "소양농협 동지팔죽 나눔 행사에 매년 빠짐없이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우리농협 여성회원 자원 봉사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수년째 이어지는 행사로 우리 관내 대표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적십자회비 참여는 우리 지역의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이 됩니다.

적십자회비 집중모금기간 2018.12.1 ~ 2019.1.31 (연중모금)

지금 바로 참여해 주세요!

- 금융기관
- 가상계좌
-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 QR코드
- 편의점
- 신용카드 (또는 신용카드 포인트)

2018년 적십자회비, 이렇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약 14억2천만원
- 재난 구호 활동 약 1억3천만원
- 안전 지식 보급 약 6억3천만원

*정기후원 및 단체 기부금 지원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원문의 063)280-5821~2

